

2021년 추석명절 가정예배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 다같이

기 도 / 가족 중 혹은 인도자

말씀나눔 / 창세기 26:1-4, 12-16 / 다같이

오늘 추석명절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명절을 맞이해서 지나간 날 동안 우리 가족 모두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인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행통하게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많은 가축과 종들을 물려받았습니다. 이삭의 주업은 목축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축업을 하는 이삭이 살고 있는 지역에 큰 가뭄이 닥쳐옵니다. 가뭄을 당하면 모든 사람이 다 힘들지만 특별히 목축업을 하는 사람에게 가뭄이란 엄청난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이나 사람이나 물이 없으면 단 며칠도 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한 이삭은 어디로 가면 사람과 가축이 다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집트로 가려고 합니다. 이집트에는 나일강이라는 큰 강이 있어서 가뭄이 닥쳐도 물 걱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집트로 가려고 모든 가축과 식물을 이끌고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이집트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에 머물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생각하기에 살만한 곳, 사람이 생각하기에 좋은 곳을 찾아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집트로 가던 발걸음을 돌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이삭으로서는 엄청난 모험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려고 한 이집트

는 물이 많아서 식솔과 가축이 살 수 있는 곳이 분명했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은 아무 것도 보장되지 않은 불확실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머물렀더니 그해에 농사를 지어서 백배의 결실을 거두었고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집트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에 머물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이삭이 자신의 생각이나 뜻을 따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를 보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의 삶을 반드시 책임지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세상에서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장래의 일들을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세상을 살다보면 성공이 분명해 보이는 길처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그 길이 분명해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으면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좀 불투명하고 불확실해 보여도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며 신실하게 믿음 안에서 길을 가는 사람을 반드시 축복하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살다보면 요령껏 살아야 한다거나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손해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사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한눈팔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온전하게 생활하다가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모두의 삶을 지켜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주시는 잃어버리지 않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락을 드립니다.

기도제목 나눔 / 인도자

가족들끼리 기도의 제목을 말하고 인도자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찬 송 /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 다같이

주 기도 /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